| 산업통상자원부 | 보 도 자 료 |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---|
| 보도 일시 | 2022. 9. 30.(금) 11:00<br>< 10.1.(토) 조간 > | 배포 일시 | 2022. 9. 30.(금) |
| 담당 부서 | 소재융합산업정책관<br>섬유탄소나노과 | 책임자 | 과 장 송주호 (044-203-428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황도연 (044-203-4283) |

# 산업부,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

## - 9.30일 「섬유패션 데이터 얼라이언스」 출범 -
## - '24년부터 「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」 가동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)는 9.30.(금) 서울 섬유센터에서 **섬유패션 관련 협회, 연구원**과 함께 **'섬유패션 데이터 얼라이언스'를 출범**하고 **섬유패션 분야의 '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' 구축**에 본격 착수했다.

< 섬유패션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약식 및 업계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2.9.30(금) 15:00, 서울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
- 참석자 : 산업부, 섬유패션 관련 협회, 연구원, 학계 및 업계 전문가 15명
-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약기관 : 한국섬유산업연합회, 한국섬유수출입협회, 한국패션산업협회, 다이텍연구원, 한국섬유소재연구원, 한국의류시험연구원

○ 먼저, **데이터 얼라이언스**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, 다이텍연구원,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**섬유패션 관련 주요 데이터를 보유한 6개 기관으로 구성**하고 **데이터의 구조 설계, 규격 표준화** 등을 추진한다.

○ **빅데이터 플랫폼은 연내** 섬유패션 분야의 **핵심 데이터 항목 선정**, **'23년 데이터 표준화 마련**, **'24년 빅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순서로 구축**된다. 이를 위한 세부 청사진인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이 연내 완료된다.

【 섬유패션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】



□ **현재까지는 섬유패션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 산재**돼 있고 **표준화도 부족**하여 **데이터의 유기적인 연계 분석 및 활용에 어려움**이 있었다.

○ 일례로 원단 개발에 관심있는 **기업이나 구매자가** 최신 **소재 정보를 찾기 위해 Ktextile.net(섬유수출입협회), 패브릭다이브(다이텍연구원), 니트 라이브러리(섬유소재연구원)** 등 사이트를 **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**이 있으며,

○ 기업마다 **색, 소재, 상품 등을 지칭하는 용어 및 코드가 달라**서 이러한 **용어 통일 및 정보분류 체계 표준화가 필요**한 실정이다.

* 폴리에스터(Polyester, PET, PL, Poly, PE 등), 환편물(Circular Knit, 컷소 Cut&Saw, 다이마루, Knit 등), 민소매(Sleeveless, 나시, 탱크탑 등)

【 섬유패션 협회 · 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 】

| 협회·기관명 | 보유 데이터 |
|---|---|
| 한국섬유산업연합회 | · **패션 이미지(1,500만건)**, 기업 정보(4천건)<br>· 국내 마켓 데이터(연도별, 성별, 지역별 패션시장 규모 통계 등) |
| 한국섬유수출입협회 | · **원단 소재정보(18만건)**, 기업 정보(5천건) |
| 한국패션산업협회 | · **패션브랜드 정보(1,200건)**, 기업 정보(300건), 상품 이미지(1,500건) |
| 다이텍연구원 | · **소재, 기업, 구매자 정보(5천건)**, 메타패션 3D물성&비쥬이미지(4천건), 3D시뮬레이션 데이터(55천건), 거래 경향 분석 데이터(4천건) |
| 한국섬유소재연구원 | · **니트 소재 정보(5천건)**, 원단열람실(오프라인) 병행 운영 |
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· **섬유패션 시험인증 데이터(338만건)** |

□ 섬유패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**수요 맞춤형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**해져 **데이터 활용 편의성이 향상**되고, 빅데이터 기반의 **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활성화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예를 들면, **현재는 소재, 봉제, 시장 등 정보를 여러 기관에 접속해 일일이 수집**했으나 **앞으로는 동 플랫폼에서 원하는 정보를 일괄로 서비스** 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또, **실시간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**하여 **생산의 신속성, 효율성 향상을 도모**할 수 있다. 그동안 패션넷(fashionnet.or.kr)을 통해 유행 및 마켓 정보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공받던 기업은 **앞으로 소비자 검색 및 소비 패턴, 경향, 소재 연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**받아 **소비자 수요에 신속 대응한 제품 기획-생산이 가능**하게 되고,

* 현재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기획부터 유통까지 최소 2~4주가 걸리는 데 비해, 글로벌 선도기업은 자체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기획~유통까지 단 3~7일 소요

- 다년간 축적된 **소재·물성 데이터**와 **시험인증 데이터**를 **비교 분석**하여 **소재별 불량률 정보를 제공**함으로써 기업의 **신소재·원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**할 수 있다.

* 새로운 원단 시제품 개발에 2~6개월 소요되던 것을 1~3개월로 단축,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개발 비용도 절반 이하로 하락

○ **이종 데이터 간 결합**을 통해 **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**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, **섬유 소재의 물성 데이터와 3D 모델링 데이터를 연계**하면 **메타버스 아바타용 의류를 더욱 실감나게 구현**할 수 있고, 게임, 영화, 의료, 모빌리티 등 **메타버스 신산업으로의 확장도 기대**할 수 있다.

□ 산업부는, **섬유패션 산업의 큰 흐름이 디지털과 친환경**인데 **특히 데이터 공유 및 활용**은 원사원단-염색가공-봉제의류가 맞물려 돌아가는 스트림 산업 특성 상 **섬유패션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**하고 있는 만큼,

○ 섬유패션 협·단체 등과 함께 **적극적인 데이터 개방**과 **표준화 동참**을 유도해 **'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'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**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